새 책

▶**은의 세계(위수정 지음)**=작가가 지난 4년간 써온 8편의 작품이 묶였다. 소설은 확고하고 고정된 사실의 세계가 아닌 불분명하고 유동적인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거나 숨겨야 할 것을 말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택한다. 문학동네. 1만4500원.

▶**이까짓, 생존(삼각커피 지음)**=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돈도 잘 번다면 좋겠지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자는 꿈과 돈,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준다. 좋아하는 일을 오래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씩식하게 해내며, 그 사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 봄름. 1만2000원.

▶**밥 한술, 온기 한술(원경 지음)**=원각사 무료급식소 안에서 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와 심곡암 주지로서의 일상과 사유가 담겼다. 한 명의 수행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깨달음도 진솔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내면의 허기를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전했다. 담앤북스. 1만5800원.

▶**올해의 좋은 동시 2021(권영상 외)**=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각종 매체에 발표된 신작 동시 가운데 59인의 작품 59편을 가려 뽑아 한자리에 모았다. 선정위원들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동시 역시 어린이 독자만을 위한 동시를 뛰어넘어 어른들도 즐겨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상상. 1만4000원.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배성호·주수원 지음)**=책은 어린이가 정치와 관련해 궁금해 하거나 꼭 알아야할 부분을 36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살펴본다.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와 투표권, 언론 자유 등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정치가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떤 정치가 바람직한지를 쉽게 알려준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다양한 문화의 끝판왕, 동남아시아(박소현 지음)**=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동남아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다소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는 역사와 지리를 넘어 종교, 언어, 문화, 음식, 의복, 어린이, 기후, 교통수단, 경제 등 현재적 시점과 실용적 관점으로 동남아시아를 소개한다. 사계절. 1만3500원. 오은지기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란 자만심 벗어나야

스티븐 샤비로의 '사물들의 우주'

동료 피조물의 민주주의 속 얽히고설킨 우리 자신 봐야

그는 수 버크라는 작가가 쓴 소설 '세미오시스'(2018)와 '인터퍼런스'(2019) 속 이야기를 꺼냈다. 두 소설은 식물이 가장 고도로 감각적인 형태의 생명체로 판명된 머나먼 행성을 인간이 식민지로 삼으려는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인간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행성의 지적인 식물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지배는 불가능하지만 협상은 잘 통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스티븐 샤비로는 '사물들의 우주'에서 이 같은 과학소설을 예시하며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통치자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1861~1947)가 거의 한 세기 전에 제기했던 질문을 '사변적 실재론'과 '신유물론'을 통해 새롭게 바라본 책이다.

지은이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사물들의 우주'는 기후위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을 오랫동안 파괴해온 힘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인간 존재가 의미와 가치의 중심에 홀로 서있다는 가정이다. 그는 "인간이 그 힘과 성취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전체로서의 우주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의 풍요로움에 의지하며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구를 심각하게 착취하고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를 부채질해왔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 테지만 적어도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달콤해보이는 문화적 환경과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일찍이 우리 자신을 동료 피조물들의 민주주의 속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계의 일부로 여기면서 더는 그것을 지배하지 않을 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저자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자만심을 벗어던져 버릴 필요가 있다"며 세계와 그 속에서 완전히 얽히고설킨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새로운 사고의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성 옮김. 갈무리. 1만 7000원. 진선희기자

이곳과 다르지 않은 그 지방 도시의 청춘들

오선영 소설집 '호텔 해운대'

그곳에 '인서울'이 아니라 '인부산'을 외치는 청춘들이 있다. 복작거리는 수도권에서 번듯한 직장을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지방의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안정적 삶을 보장해주는 길로 여겨지는 만큼 치열한 공채 경쟁률을 뚫고 '인부산'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말이다. 다른 지방이라고 다를까. 부산의 상황에 제주를 대입해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선영의 '호텔 해운대'는 그 같은 풍경이 있는 표제작 등 7편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작과 비평' 등에 발표했던 작품을 모은 것으로 "서울과 비교해 열악한 면모를 띠고 있는 지방으로서의 도시가 더 두드러지게 인식"(박혜진)되는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

표제작은 지역 라디오방송 퀴즈 정답자로 뽑혀 제주도 특급호텔 숙박권을 기대했지만 결국 호텔 해운대 일박 숙박권을 받아든 부산에 사는 주인공 수정의 사연을 그렸다. 부산의 작은 출판사 직원인 수정은 캠퍼스커플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민우와 호텔 해운대로 향하는데 그 과정에 지방에 살고 있는 청춘들의 초상이 포개진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부산이 고향이라고 말했더니 같은 과 선배들이 창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냐는 말에 황당했다는 작중 인물의 대사에선 지방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 드러난다. '우리들의 낙원', '바람벽' 같은 소설에도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인물들이 어느 곳이나 다르지 않은 삶의 고민을 전한다.

오 작가는 "내겐 일상이자 보통의 날들인 이곳의 이야기가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보통의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내가 발 딛고 있는 어느 곳에서, 계속해서 소설을 쓰겠다"고 했다. 창비. 1만4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조미경 첫 소설집 '귀가 없다'

"어미를 잃은 것들의 눈물이 됐으면"

"내 소설이 어미를 잃은 것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둠이 땅 아래로 스미는 밤, 돌아갈 불빛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대신 울어 주고 싶다." 소설집 첫머리에 실린 '작가의 말'을 먼저 읽어서일까.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들을 하나둘 펼치는 동안 '엄마'라는 이름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제주 조미경 작가의 소설집 '귀가 없다'는 표제작과 함께 '우리 집에 왜 왔니?', '동거', '한글 공부', '똥돼지', '그녀, 허궁' 등 6편의 단편을 차례로 담고 있다. 그가 2003년 제주작가회의의 '제주작가'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묶어낸 소설집이다.

흑백 사진이 떠오르는 풍경에서 저 먼 미래까지 닿는 이들 소설 속 엄마는 대개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깨지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 환청과 환각('귀가 없다'), 외상성 치매('동거') 진단을 받거나 아들을 낳지 못해('한글 공부') 구박을 받는 식이다. '귀가 없다'의 달팽이, '동거'의 개미와 바퀴벌레 등은 가족이라는 굴레 등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인물들의 처지를 연상시킨다. 초경을 경험한 열다섯 살 주인공('똥돼지')이 꿈꾸는 어른의 나날은 아이의 바람처럼 그저 평화롭기만 할까.

이별하거나 병든 여자들의 생 가상의 어느 날 '허궁'의 출산 여자아인 어떤 어른으로 클까

'우리 집에 왜 왔니?'엔 오늘날 제주를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다. 작가는 단층의 작은 학교와 초록 천연 잔디 운동장, 토토로 숲의 주술에 걸려들어 제주로 향한 서울의 학부모들과 어울리는 서연맘의 시선을 통해 이주 열풍의 이면을 그렸다. "아, 떠날 때가 됐나 봐. 제주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어"라는 인규맘을 두고 서연맘이 "고상하고 우아한 뻔뻔함"이라고 하면서도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어미로서의 무능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웠다"는 대목에선 우리 시대 엄마들을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무게를 느끼게 한다.

가상의 어느 날을 상상한 '그녀, 허궁'은 인류가 지혜롭게 넘긴 것으로 알았던 두 번째 팬데믹이 남긴 불임이라는 후유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인류는 제주 신화 본풀이에서 이름을 따온 허궁no.507이라는 한 대의 로봇으로 착상부터 출산, 육아까지 완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 부녀 관계가 부부 관계로 뒤바뀐다는 설정으로 "여자 그리고 엄마의 자리가 중요하다"(양혜영)는 것을 말하며 "여섯 편의 작품을 아우르는 작가의 메시지"를 녹여냈다. 한그루. 1만2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수 축 훈
CONGRATULATIONS
녹조근정훈장

김 기 홍

녹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 서 일 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사 무 관
(정방동장)

송 지 숙
(시부 : **오대진** · 시모 : **김윤자** · 배우자 : **오명철**)

사무관(정방동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씨중파상주계문중회
회 장 **오 명 환** 외 종친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제주자치경찰단 경정

강 수 천

제주자치경찰단 경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 일동
장인 : **김만형** 장모 : **임정희**
처남 : **김수관(김순정), 김수호(홍미경)**
조카 : **김규식, 범식, 준식, 소정, 소은**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